

스승의 날 사랑의 사이버 카네이션 메시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를 여러 곳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도 배웁니다. 자연을 통해 얻는 가르침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학교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민주주의를 하게 된 것도 교육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역량과 자질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것 또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교육 현실에 대해 이런저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중심이 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권이 제자리로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식과 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정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야 할 일이지만, 그 중심적인 역할은 역시 선생님이 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참다운 승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 혁신에 나서고 있고 하나하나 성과를 이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대화하고, 학교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데 정성을 쏟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가면 서로간의 신뢰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회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